



산업연관표

2024년 6월 25일 공보 2024 - 06 - 17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6월 26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5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0년 고용표」 작성 결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과 장 박영진 (02-759-4273, yjpark@bok.or.kr)
조사역 민상오 (02-759-4447, mso0107@bok.or.kr)
팀 장 정영호 (02-759-5095, jyh@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
세부 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붙임>

2020년 고용표 작성 결과

2024. 6.

경제통계국 산업통계부 투입산출팀

<차례>

<요약>

I. 작성 개요	1
1. 작성 의의	1
2. 작성 기준	1
3. 추계 방법	1
4. 해석시 유의할 사항	1
5. 기타	2
II. 2020년 취업구조	3
1. 개황	3
2. 부문별 취업구조	4
3. 취업형태별 취업구조	7
4. 성별 취업구조	8
<참고> 취업구조의 국제비교	
III. 노동계수	10
1. 취업계수	10
2. 고용계수	12
IV. 노동유발효과	13
1. 부문별 유발효과	13
2.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효과	18

< 요약 >

I. 작성 개요

-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4.29일 보도)의 부속표로서 노동파급효과 분석,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에 활용되는 「2020년 고용표」를 작성
 - 전업환산기준*으로 노동량을 추계하여 취업자**를 부문별, 취업형태별, 성별로 구분
 - *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환산
 - ** 취업자 =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일용직)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경제총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고용 관련 자료와 산업연관표를 연계하여 편제

II. 2020년 고용 현황*

* 2020년 결과를 2015년과 비교·분석

【취업 구조】

① 총취업자 : 감소

- 총취업자수는 2,444만명으로 2015년(2,483만명)에 비해 1.6%(-39 만명) 감소
 - 취업형태별로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73.6%→74.4%)의 비중이 상승하였으며, 성별 비중(남 61.0%, 여 39.0%)은 2015년과 동일

취업형태 및 성별 취업구조

		2015년(A)		2020년(B)		증감(B-A)	
		2,483	(100.0)	2,444	(100.0)	-39	[-1.6]
취업 형태별	임금근로자	1,827	(73.6)	1,818	(74.4)	-9	[-0.5]
	상용직	1,288	(51.9)	1,422	(58.2)	134	[10.4]
	남성	847	(34.1)	893	(36.5)	46	[5.4]
	여성	442	(17.8)	530	(21.7)	88	[19.9]
	임시·일용직	539	(21.7)	395	(16.2)	-144	[-26.7]
	자영·무급가족	656	(26.4)	626	(25.6)	-30	[-4.5]
성별	남성	1,514	(61.0)	1,490	(61.0)	-24	[-1.6]
	여성	969	(39.0)	954	(39.0)	-15	[-1.6]

주 : ()내는 총 취업자 대비 구성비, []내는 증감을

② 부문별 취업자 : 공산품 비중은 하락(-1.2%p)하고 서비스는 소폭 상승(+0.1%p)

- 공산품은 섬유 및 가죽제품(1.4%→0.8%) 등 소비재제품을 중심으로 비중이 하락
-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양방향으로 나타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6.3%→7.5%) 등은 증가하고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14.2%→12.9%) 등은 감소

품목별 취업자 구성

	2015년(A)		2020년(B)		증감(B-A)	
	만명	(%)	만명	(%)	만명	(%)
농림수산물	125	(5.0)	134	(5.5)	9	[0.5]
광산품	1	(0.0)	1	(0.0)	0	[0.0]
공산품	406	(16.3)	369	(15.1)	-37	[-1.2]
섬유 및 가죽제품	34	(1.4)	19	(0.8)	-15	[-0.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9	(0.8)	26	(1.1)	7	[0.3]
건설	169	(6.8)	177	(7.2)	8	[0.4]
서비스	1,764	(71.0)	1,737	(71.1)	-27	[0.1]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	353	(14.2)	316	(12.9)	-37	[-1.3]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56	(6.3)	183	(7.5)	27	[1.2]
전체	2,483	(100.0)	2,444	(100.0)	-39	[0.0]

주 : ()내는 총 취업자 대비 구성비, []내는 구성비 증감

③ 취업형태별 취업자 : 상용직 비중 상승(+6.3%p)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79.3%→76.5%)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용직(51.9%→58.2%)의 비중이 상승
- 특히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34.0%→45.8%)와 부동산서비스(37.5%→49.1%)에서 상용직 비중이 확대

취업형태별 취업자 구성

	2015년(A)			2020년(B)			증감(B-A)		
	상용	임시일용	자영무급	상용	임시일용	자영무급	상용	임시일용	자영무급
농림수산물	1.8	7.4	90.8	2.6	5.2	92.2	0.8	-2.2	1.4
광산품	87.7	3.0	9.4	94.5	3.2	2.3	6.8	0.2	-7.1
공산품	73.6	14.3	12.0	80.1	9.1	10.8	6.5	-5.2	-1.2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79.3	11.4	9.3	76.5	9.1	14.4	-2.8	-2.3	5.1
건설	33.1	43.3	23.7	41.6	39.0	19.4	8.5	-4.3	-4.3
서비스	51.9	22.5	25.6	59.2	16.3	24.5	7.3	-6.2	-1.1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	34.0	24.4	41.6	45.8	15.3	38.9	11.8	-9.1	-2.7
부동산서비스	37.5	24.5	38.0	49.1	15.2	35.6	11.6	-9.3	-2.4
전체	51.9	21.7	26.4	58.2	16.2	25.6	6.3	-5.5	-0.8

4) 성별 취업자 : 상용직에서 여성 비중 상승(+2.9%p)

- 전체 취업자에서 여성(39.0%)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과 동일했으나 상용직에서는 여성 비중(34.3%→37.2%)이 상승
- 여성 비중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81.5%)와 교육서비스(63.6%)에서 높게 나타남

성별 취업자 구성

	2015년(A)		2020년(B)		증감(B-A)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 %p)					
농림수산물	60.3	39.7	63.3	36.7	3.0	-3.0
광산품	89.1	10.9	83.6	16.4	-5.5	5.5
제조업	72.3	27.7	73.3	26.7	1.0	-1.0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처리업	80.9	19.1	80.5	19.5	-0.4	0.4
건설업	91.8	8.2	89.9	10.1	-1.9	1.9
서비스업	55.2	44.8	54.9	45.1	-0.3	0.3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20.2	79.8	18.5	81.5	-1.7	1.7
교육 서비스	35.2	64.8	36.4	63.6	1.2	-1.2
전체	61.0	39.0	61.0	39.0	0.0	0.0
상용직	65.7	34.3	62.8	37.2	-2.9	2.9

<참고>

취업구조의 국제비교

- (산업별) 2020년 주요국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비교대상국(한·미·일·독·영) 중 가장 높고 서비스업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형태별·성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및 여성 취업자 비중은 여타 국가 대비 낮은 수준

주요국의 취업자 비중 (2020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산업별	농림수산물업	5.9	1.6	3.7	1.3	1.2
	광산업	0.1	0.5	0.1	0.1	0.2
	제조업	17.9	9.8	15.5	17.2	7.7
	전기·가스·수도	0.9	1.2	0.9	1.3	1.0
	건설업	8.2	7.2	6.9	5.9	6.8
취업형태별	서비스업	67.0	79.7	73.0	74.2	83.2
	임금근로자	75.6	93.8	88.6	91.0	85.5
성별	자영·무급가족	24.4	6.2	11.4	9.0	14.5
	남성	57.2	53.2	55.5	53.2	52.3
	여성	42.8	46.8	44.5	46.8	47.7

자료 : OECD

주 : 국제비교를 위해 OECD 자료(산업별 연인원 기준)를 사용함에 따라 고용표(상품별 전업환산 기준)와 비중이 상이함

【노동유발효과】

※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①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 : 하락

— 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는 5.4로 2015년(6.5명)에 비해 1.1명 하락

○ 취업계수 하락은 서비스(10.2명→7.7명)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비스 산출액(1,722조→2,246조)은 증가한 반면 취업자(1,764만명→1,737만명)는 감소한 데 기인

— 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임금근로자수를 의미하는 고용계수는 2015년(4.8명)에 비해 0.8명 하락한 4.0명을 기록

②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 하락

—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 10억원이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는 9.7명으로 2015년(11.7명)에 비해 2.0명 하락

○ 공산품(7.3명→6.3명)은 섬유 및 가죽제품과 목재 및 종이, 인쇄를 중심으로, 서비스(15.0명→11.5명)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와 사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취업유발계수가 하락

취업(고용)계수 및 취업(고용)유발계수

	(명/10억원)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2015년	2020년	2015년	2020년	2015년	2020년	2015년	2020년
농림수산물	20.3	20.8	1.9	1.6	25.0	25.3	4.7	4.3
광산품	2.8	3.0	2.5	2.9	8.5	8.3	6.7	6.9
공산품	2.4	2.0	2.1	1.8	7.3	6.3	5.5	4.7
섬유 및 가죽제품	4.2	3.1	3.3	2.4	10.6	7.9	8.0	5.9
목재 및 종이, 인쇄	4.3	3.4	3.5	2.8	10.6	8.9	7.9	6.8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1.7	2.1	1.5	1.8	4.1	4.7	3.4	3.8
건설	7.6	6.3	5.8	5.1	12.8	10.5	9.7	8.2
서비스	10.2	7.7	7.6	5.8	15.0	11.5	11.1	8.6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	14.2	9.2	8.3	5.6	19.6	13.5	12.0	8.6
사업지원서비스	15.6	10.5	14.5	9.8	19.4	13.8	17.3	12.3
전체	6.5	5.4	4.8	4.0	11.7	9.7	8.6	7.2

I 작성 개요

1 작성 의의

- 고용표는 1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나타낸 산업연관표 부속표로서 노동과급효과 분석 및 인력수급 계획 등에 활용

2 작성 기준

- 전업환산기준*(full-time equivalent) 인원 및 총실제근로시간**(total actual hours worked)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량을 측정

*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환산

** 직접 및 연관 노동시간, 대기 및 휴게시간 등을 포괄

3 추계 방법

- 취업자와 임금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지역별고용조사, 경제총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고용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

- 전업환산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량을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시간 기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

— 전업환산시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 비율을 이용

- 노동계수와 노동유발계수는 취업자와 임금근로자를 산업연관표와 연계하여 추계

4 해석시 유의할 사항

- 통합 분류의 계수 및 유발계수는 통합 거래표로부터 계산된 것으로서 하위 부문들의 계수의 합 또는 평균과는 다르며, 동일한 부문의 유발계수도 다른 부문들의 통합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음

- 각종 계수는 고용의 선형적 증감을 가정하므로 실제 고용의 증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수 및 유발계수는 당해년 명목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생산기술구조 변화에 의한 효과뿐만 아니라 가격변화에 의한 효과도 반영되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

5 기타

- 2020년 고용표는 전업환산기준 근로시간을 하향 조정(40→36시간)하고 군인의 포괄범위를 확대(사병, 상근예비역, 사회복지무요원 추가)함으로써 고용여건의 변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SNA 정합성을 제고
 - 2020년 고용표는 상기한 개편 사항과 2020년 실측 산업연관표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므로 2015년 고용표와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점에 유의
- 2021-2022년 고용표는 9월에 발표하고, 다음으로 2016-2019년 고용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

II 2020년 취업구조

1 개황

취업자수 감소

□ 2020년중 우리나라 총 취업자* 수(전업환산기준, 이하 동일)는 2,444만명으로 2015년(2,483만명)과 비교하면 1.6%(-39만명) 감소

* 취업자 =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일용직)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수는 1,818만명으로 2015년(1,827만명)에 비해 0.5%(-9만명) 감소

□ 취업형태별 비중은 임금근로자 74.4%,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25.6%이며 2015년(각각 73.6% 및 26.4%)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이 0.8%p 상승

— 이는 상용직 증가(+10.4%)에 힘입어 임금근로자의 감소율(-0.5%)이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4.5%)보다 작게 나타난 데 기인

□ 성별 비중은 남성이 61.0%, 여성이 39.0%로 2015년과 동일

— 한편 상용직 내에서는 여성(+19.9%)이 남성(+5.4%)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비중(34.3%→37.2%)이 2.9%p 상승

취업형태 및 성별 취업구조

		2015년(A)		2020년(B)		증감(B-A)	
		2,483	(100.0)	2,444	(100.0)	-39	[-1.6]
취업 형태별	취업자	2,483	(100.0)	2,444	(100.0)	-39	[-1.6]
	임금근로자	1,827	(73.6)	1,818	(74.4)	-9	[-0.5]
	상용직	1,288	(51.9)	1,422	(58.2)	134	[10.4]
	남성	847	(34.1)	893	(36.5)	46	[5.4]
	여성	442	(17.8)	530	(21.7)	88	[19.9]
임시·일용직	539	(21.7)	395	(16.2)	-144	[-26.7]	
자영·무급가족	656	(26.4)	626	(25.6)	-30	[-4.5]	
성별	남성	1,514	(61.0)	1,490	(61.0)	-24	[-1.6]
	여성	969	(39.0)	954	(39.0)	-15	[-1.6]

주 : ()내는 총 취업자 대비 구성비, []내는 증감률

2

부문별 취업구조

공산품 비중 하락·서비스 비중 소폭 확대

- 부문별 취업자 비중은 서비스가 71.1%(1,737만명)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공산품 15.1%(369만명), 건설 7.2%(177만명), 농림수산물 5.5%(134만명) 순
 - 서비스 중에서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12.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7.5%),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7.2%)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공산품 중에서는 화학제품(1.7%),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7%), 제조임가공, 산업용장비수리(1.7%)가 크게 나타남

- 부문별 취업자 비중을 2015년과 비교하면 공산품(16.3%→15.1%, -1.2%p)은 하락한 반면 서비스(71.0%→71.1%, +0.1%p)는 소폭 상승
 - 공산품은 섬유 및 가죽제품(1.4%→0.8%) 등 소비재제품(4.0%→3.4%)과 제조임가공, 산업용장비수리(2.1%→1.7%)를 중심으로 비중이 하락
 -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양방향으로 나타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6.3%→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6.1%→6.3%) 등은 증가하고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14.2%→12.9%),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7.9%→7.2%), 교육서비스(6.1%→5.8%) 등은 감소하였음

품목별 취업자 구성

(만명, %, %p)

				2015년(A)		2020년(B)		증감(B-A)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125	(5.0)	134	(5.5)	9	[0.5]
	광공업			1	(0.0)	1	(0.0)	0	[0.0]
	소비재제			406	(16.3)	369	(15.1)	-37	[-1.2]
	음식료			99	(4.0)	83	(3.4)	-16	[-0.6]
	섬유 및 가죽 제품			31	(1.2)	34	(1.4)	3	[0.2]
	목재 및 종이, 인쇄			34	(1.4)	19	(0.8)	-15	[-0.6]
	기타 제조업 제품			19	(0.8)	16	(0.7)	-3	[-0.1]
	기초소재제			16	(0.7)	13	(0.5)	-3	[-0.2]
	석탄 및 석유 제품			105	(4.2)	100	(4.1)	-5	[-0.1]
	석탄			1	(0.0)	1	(0.0)	0	[0.0]
	화학제			40	(1.6)	42	(1.7)	2	[0.1]
	비금속 광물 제품			11	(0.4)	11	(0.4)	0	[0.0]
	1차 금속 제품			15	(0.6)	13	(0.5)	-2	[-0.1]
	금속 가공 제품			38	(1.5)	33	(1.4)	-5	[-0.1]
	조립가공제			150	(6.1)	144	(5.9)	-6	[-0.2]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			41	(1.6)	41	(1.7)	0	[0.1]
	전기장비			23	(0.9)	24	(1.0)	1	[0.1]
	기계 및 장비			40	(1.6)	40	(1.6)	0	[0.0]
	운송장비			47	(1.9)	39	(1.6)	-8	[-0.3]
	제조임가공, 산업용장비수리			51	(2.1)	42	(1.7)	-9	[-0.4]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9	(0.8)	26	(1.1)	7	[0.3]
	건설			169	(6.8)	177	(7.2)	8	[0.4]
	서비스			1,764	(71.0)	1,737	(71.1)	-27	[0.1]
	도소매 및 운송			495	(19.9)	457	(18.7)	-38	[-1.2]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			353	(14.2)	316	(12.9)	-37	[-1.3]
	운송 서비스			142	(5.7)	141	(5.8)	-1	[0.1]
	생산자 서비스			450	(18.1)	471	(19.3)	21	[1.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66	(2.7)	74	(3.0)	8	[0.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72	(2.9)	67	(2.8)	-5	[-0.1]
	부동산 서비스			50	(2.0)	55	(2.3)	5	[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42	(5.7)	155	(6.3)	13	[0.6]
	사업지원 서비스			119	(4.8)	120	(4.9)	1	[0.1]
	사회 서비스			460	(18.5)	477	(19.5)	17	[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53	(6.1)	154	(6.3)	1	[0.2]
	교육 서비스			151	(6.1)	141	(5.8)	-10	[-0.3]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56	(6.3)	183	(7.5)	27	[1.2]
	소비자 서비스			359	(14.5)	332	(13.6)	-27	[-0.9]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96	(7.9)	175	(7.2)	-21	[-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44	(1.8)	43	(1.8)	-1	[0.0]
	기타 서비스			120	(4.8)	113	(4.6)	-7	[-0.2]
	기타			-	-	-	-	-	-
	합계			2,483	(100.0)	2,444	(100.0)	-39	[0.0]

주 : ()내는 총 취업자 대비 구성비, []내는 구성비 증감

(임금근로자)

□ 부문별 임금근로자 비중은 서비스가 72.2%(1,312만명)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공산품 18.1%(329만명), 건설 7.9%(143만명),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2%(22만명) 순

— 2015년과 비교하면 서비스(71.8%→72.2%, +0.4%p)와 건설(7.1%→7.9%, +0.8%p)은 상승한 반면 공산품(19.5%→18.1%, -1.4%p)은 하락

품목별 임금근로자 구성

(만명, %, %p)

		2015년(A)		2020년(B)		증감(B-A)	
농림수산물	림	11	(0.6)	10	(0.6)	-1	[0.0]
	수산물	1	(0.1)	1	(0.1)	0	[0.0]
제조업	제조업	357	(19.5)	329	(18.1)	-28	[-1.4]
	제조업	76	(4.2)	66	(3.6)	-10	[-0.6]
서비스업	서비스업	24	(1.3)	28	(1.6)	4	[0.3]
	서비스업	26	(1.4)	15	(0.8)	-11	[-0.6]
건설	건설	15	(0.8)	13	(0.7)	-2	[-0.1]
	건설	11	(0.6)	9	(0.5)	-2	[-0.1]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94	(5.1)	91	(5.0)	-3	[-0.1]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	(0.1)	1	(0.1)	0	[0.0]
공공	공공	37	(2.0)	40	(2.2)	3	[0.2]
	공공	10	(0.5)	9	(0.5)	-1	[0.0]
기타	기타	14	(0.8)	12	(0.7)	-2	[-0.1]
	기타	32	(1.8)	29	(1.6)	-3	[-0.2]
제조업	제조업	140	(7.7)	135	(7.4)	-5	[-0.3]
	제조업	38	(2.1)	39	(2.1)	1	[0.0]
서비스업	서비스업	21	(1.2)	22	(1.2)	1	[0.0]
	서비스업	35	(1.9)	36	(2.0)	1	[0.1]
건설	건설	46	(2.5)	38	(2.1)	-8	[-0.4]
	건설	46	(2.5)	37	(2.1)	-9	[-0.4]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7	(0.9)	22	(1.2)	5	[0.3]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29	(7.1)	143	(7.9)	14	[0.8]
서비스업	서비스업	1,312	(71.8)	1,312	(72.2)	0	[0.4]
	서비스업	285	(15.6)	272	(15.0)	-13	[-0.6]
공공	공공	206	(11.3)	193	(10.6)	-13	[-0.7]
	공공	79	(4.3)	79	(4.4)	0	[0.1]
기타	기타	396	(21.7)	415	(22.8)	19	[1.1]
	기타	59	(3.3)	66	(3.7)	7	[0.4]
서비스업	서비스업	69	(3.8)	65	(3.6)	-4	[-0.2]
	서비스업	31	(1.7)	36	(2.0)	5	[0.3]
건설	건설	125	(6.9)	136	(7.5)	11	[0.6]
	건설	111	(6.1)	111	(6.1)	0	[0.0]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416	(22.7)	441	(24.3)	25	[1.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53	(8.4)	154	(8.4)	1	[0.0]
공공	공공	117	(6.4)	113	(6.2)	-4	[-0.2]
	공공	146	(8.0)	175	(9.6)	29	[1.6]
서비스업	서비스업	215	(11.8)	184	(10.1)	-31	[-1.7]
	서비스업	116	(6.3)	94	(5.2)	-22	[-1.1]
건설	건설	28	(1.5)	26	(1.5)	-2	[0.0]
	건설	71	(3.9)	64	(3.5)	-7	[-0.4]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	-	-	-	-	-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827	(100.0)	1,818	(100.0)	-9	[0.0]

주 : ()내는 총 임금근로자 대비 구성비, []내는 구성비 증감

3 취업형태별 취업구조

상용직 비중 확대

□ 취업형태별 취업자 비중은 상용직 58.2%, 임시·일용직 16.2%,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25.6%로 2015년(각각 51.9%, 21.7%, 26.4%)에 비해 상용직은 6.3%p 상승한 반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5.5%p 및 0.8%p 감소

— 상용직 비중은 공산품(73.6%→80.1%) 및 서비스(51.9%→59.2%)가 각각 6.5%p 및 7.3%p 상승

취업형태별 취업자 구성

		2015년(A)			2020년(B)			증감(B-A)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 , %p)			(% , %p)			(% , %p)		
농림수산물	림	1.8	7.4	90.8	2.6	5.2	92.2	0.8	-2.2	1.4
	수산물	87.7	3.0	9.4	94.5	3.2	2.3	6.8	0.2	-7.1
	산	73.6	14.3	12.0	80.1	9.1	10.8	6.5	-5.2	-1.2
	산재	54.4	22.7	22.9	65.8	13.6	20.6	11.4	-9.1	-2.3
	음식점	58.7	18.4	22.9	70.3	12.1	17.5	11.6	-6.3	-5.4
	유제품	49.0	29.7	21.3	59.1	19.5	21.4	10.1	-10.2	0.1
	기타	63.6	16.4	20.0	72.4	9.8	17.8	8.8	-6.6	-2.2
	기초	46.9	23.5	29.6	55.8	13.7	30.6	8.9	-9.8	1.0
	석탄	77.9	11.8	10.3	83.2	7.7	9.1	5.3	-4.1	-1.2
	화학	96.5	2.1	1.5	95.6	1.2	3.2	-0.9	-0.9	1.7
제조업	비금속	79.0	12.8	8.3	85.5	8.4	6.0	6.5	-4.4	-2.3
	금속	74.6	13.3	12.1	77.4	8.2	14.5	2.8	-5.1	2.4
	1차	88.8	6.9	4.3	92.7	3.9	3.4	3.9	-3.0	-0.9
	제조	73.0	12.4	14.6	78.2	8.1	13.6	5.2	-4.3	-1.0
	컴퓨터	83.2	10.0	6.7	86.9	6.9	6.2	3.7	-3.1	-0.5
	전자	83.1	10.5	6.5	87.6	6.9	5.5	4.5	-3.6	-1.0
	기계	79.1	13.0	7.9	84.9	7.4	7.7	5.8	-5.6	-0.2
	기계	80.6	8.2	11.2	84.3	6.3	9.5	3.7	-1.9	-1.7
	운송	87.6	9.7	2.7	90.0	7.2	2.7	2.4	-2.5	0.0
	제조업	73.8	16.1	10.1	77.7	11.1	11.2	3.9	-5.0	1.1
전력·가스·수도	전력	79.3	11.4	9.3	76.5	9.1	14.4	-2.8	-2.3	5.1
	가스	33.1	43.3	23.7	41.6	39.0	19.4	8.5	-4.3	-4.3
	수도	51.9	22.5	25.6	59.2	16.3	24.5	7.3	-6.2	-1.1
	도소매	36.7	20.9	42.4	45.9	13.7	40.4	9.2	-7.2	-2.0
	도소매	34.0	24.4	41.6	45.8	15.3	38.9	11.8	-9.1	-2.7
	운송	43.4	12.3	44.3	45.9	10.2	43.8	2.5	-2.1	-0.5
	생산	67.4	20.7	12.0	72.8	15.3	11.9	5.4	-5.4	-0.1
	정보통신	81.7	8.4	9.9	84.2	5.9	9.9	2.5	-2.5	0.0
	금융	61.7	34.1	4.1	68.4	28.7	2.8	6.7	-5.4	-1.3
	부동산	37.5	24.5	38.0	49.1	15.2	35.6	11.6	-9.3	-2.4
사회서비스	전문	78.3	9.9	11.7	81.4	6.6	12.0	3.1	-3.3	0.3
	과학	62.3	30.5	7.2	68.1	24.8	7.0	5.8	-5.7	-0.2
	사업	76.1	14.4	9.6	79.2	13.2	7.6	3.1	-1.2	-2.0
	공공행정	92.7	7.3	0.0	89.9	10.1	0.0	-2.8	2.8	0.0
	교육	57.1	20.4	22.5	64.1	16.3	19.7	7.0	-4.1	-2.8
	보건	78.2	15.4	6.4	81.8	13.4	4.7	3.6	-2.0	-1.7
	및	22.6	37.2	40.2	29.7	25.8	44.5	7.1	-11.4	4.3
	음식점	15.3	43.8	40.9	24.9	28.7	46.5	9.6	-15.1	5.6
	예술	35.3	29.4	35.3	35.2	26.4	38.4	-0.1	-3.0	3.1
	기타	29.9	29.3	40.7	35.1	21.0	43.9	5.2	-8.3	3.2
기타	-	-	-	-	-	-	-	-	-	
전체	51.9	21.7	26.4	58.2	16.2	25.6	6.3	-5.5	-0.8	

4

성별 취업구조

성별 비중은 남녀 61:39로 2015년과 동일

□ 성별 취업자 비중은 남성 61.0%, 여성 39.0%로 2015년과 동일했으나 상용직에서는 여성 비중(34.3%→37.2)이 상승

— 여성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공산품(27.7%→26.7%, -1.0%p)은 2015년 대비 하락한 반면 서비스(44.8%→45.1%, +0.3%p)는 상승

성별 취업자 구성

		2015년(A)		2020년(B)		증감(B-A)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농림수산물	림	60.3	39.7	63.3	36.7	3.0	-3.0
	수산물	89.1	10.9	83.6	16.4	-5.5	5.5
	산	72.3	27.7	73.3	26.7	1.0	-1.0
	제품	57.7	42.3	60.3	39.7	2.6	-2.6
	음식	52.5	47.5	56.5	43.5	4.0	-4.0
	섬유	47.8	52.2	49.7	50.3	1.9	-1.9
	목재	74.2	25.8	73.0	27.0	-1.2	1.2
	기타	69.2	30.8	70.2	29.8	1.0	-1.0
	기초	77.9	22.1	77.7	22.3	-0.2	0.2
	석탄	91.0	9.0	91.6	8.4	0.6	-0.6
제조업	화학	69.9	30.1	68.9	31.1	-1.0	1.0
	비금속	83.1	16.9	82.6	17.4	-0.5	0.5
	1차	90.2	9.8	89.6	10.4	-0.6	0.6
	금속	79.8	20.2	82.4	17.6	2.6	-2.6
	컴퓨터	77.8	22.2	78.1	21.9	0.3	-0.3
	전자	68.4	31.6	70.4	29.6	2.0	-2.0
	기계	72.1	27.9	74.5	25.5	2.4	-2.4
	운송	84.4	15.6	83.3	16.7	-1.1	1.1
	제조업	83.2	16.8	83.2	16.8	0.0	0.0
	전력	72.6	27.4	72.1	27.9	-0.5	0.5
건설	건설	80.9	19.1	80.5	19.5	-0.4	0.4
	도소매	91.8	8.2	89.9	10.1	-1.9	1.9
	비운송	55.2	44.8	54.9	45.1	-0.3	0.3
	도소매	65.5	34.5	66.3	33.7	0.8	-0.8
	운송	55.4	44.6	56.8	43.2	1.4	-1.4
	생산	90.3	9.7	87.6	12.4	-2.7	2.7
	정보통신	63.4	36.6	63.2	36.8	-0.2	0.2
	금융	75.3	24.7	74.3	25.7	-1.0	1.0
	부동산	50.9	49.1	47.5	52.5	-3.4	3.4
	전문	64.8	35.2	63.8	36.2	-1.0	1.0
사회서비스	사회	67.8	32.2	66.7	33.3	-1.1	1.1
	공공행정	58.5	41.5	60.4	39.6	1.9	-1.9
	교육	45.9	54.1	42.3	57.7	-3.6	3.6
	보건	82.7	17.3	76.3	23.7	-6.4	6.4
	소비	35.2	64.8	36.4	63.6	1.2	-1.2
	음식점	20.2	79.8	18.5	81.5	-1.7	1.7
	기타	42.9	57.1	45.5	54.5	2.6	-2.6
	숙박	37.6	62.4	41.0	59.0	3.4	-3.4
	예식	59.7	40.3	55.1	44.9	-4.6	4.6
	기타	45.3	54.7	48.6	51.4	3.3	-3.3
기타	-	-	-	-	-	-	
전체	61.0	39.0	61.0	39.0	0.0	0.0	
상용직	65.7	34.3	62.8	37.2	-2.9	2.9	

<참고>

취업구조의 국제비교

- **(산업별)** 2020년 주요국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고 서비스업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비중은 한국(17.9%), 독일(17.2%), 일본(15.5%), 미국(9.8%), 영국(7.7%) 순이며, 서비스업 비중은 영국(83.2%), 미국(79.7%), 독일(74.2%), 일본(73.0%), 한국(67.0%) 순
 - 한편 농림수산업(5.9%)과 건설업(8.2%) 비중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모습
- **(취업형태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5.6%로 미국(93.8%), 독일(91.0%), 일본(88.6%), 영국(85.5%) 등 여타 국가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
- **(성별)** 여성 취업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42.8%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서 일본(44.5%), 독일(46.78%), 미국(46.84%), 영국(47.7%) 순

주요국의 취업자 비중 (2020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산업별	농 립 수 산 업	5.9	1.6	3.7	1.3	1.2
	광 업	0.1	0.5	0.1	0.1	0.2
	제 조 업	17.9	9.8	15.5	17.2	7.7
	전 기 · 가 스 · 수 도	0.9	1.2	0.9	1.3	1.0
	건 설 업	8.2	7.2	6.9	5.9	6.8
	서 비 스 업	67.0	79.7	73.0	74.2	83.2
취업형태별	임 금 근 로 자	75.6	93.8	88.6	91.0	85.5
	자 영 · 무 급 가 족	24.4	6.2	11.4	9.0	14.5
성별	남 성	57.2	53.2	55.5	53.2	52.3
	여 성	42.8	46.8	44.5	46.8	47.7

자료 : OECD

주 : 국제비교를 위해 OECD 자료(산업별 연인원 기준)를 사용함에 따라 고용표(상품별 전업환산 기준)와 비중이 상이함

Ⅲ 노동계수*

* 2020년 실측 산업연관표 작성 기준에 맞추어 2015년 노동계수와 유발효과를 재계산 후 비교

공산품과 서비스에서 취업계수와 고용계수가 하락

1 취업계수

※ 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하며, 노동생산성과 역의 상관관계에 있음. 일반적으로 생산설비 자동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의한 인력감축 등으로 취업계수가 하락추세를 나타냄

□ 전체 취업계수(10억원당, 명목금액 기준)는 5.4명으로 부문별로는 농림수산물 20.8명, 서비스 7.7명, 건설 6.3명 순이며, 공산품은 2.0명으로 낮은 수준

— 서비스는 교육서비스(11.1명)와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10.9명), 공산품은 제조임가공, 산업용장비수리(5.9명)와 목재 및 종이, 인쇄(3.4명) 등이 높게 나타남

□ 취업계수는 2015년(6.5명) 대비 1.1명 하락하였으며 서비스(10.2명→7.7명, -2.5명)의 하락폭이 공산품(2.4명→2.0명, -0.4명)보다 크게 나타남

— 서비스의 취업계수는 소비자서비스(15.9명→12.2명), 도소매 및 운송(12.7명→9.2명) 등 모든 부문에서 하락

— 공산품의 취업계수도 제조임가공, 산업용장비수리(8.4명→5.9명), 소비재제품(3.7명→2.9명) 등 모든 부문에서 하락

품목별 취업계수

(명/10억원)

				2015년(A)	2020년(B)	증감(B-A)
농림수산물	총			20.3	20.8	0.5
	산			2.8	3.0	0.2
광공업	총			2.4	2.0	-0.4
	제조			3.7	2.9	-0.8
소	음식료			2.5	2.3	-0.2
	섬유 및 가죽			4.2	3.1	-1.1
목재	및 종이, 인쇄			4.3	3.4	-0.9
	기타 제조			8.0	5.0	-3.0
기초	소재			1.7	1.5	-0.2
	석탄 및 석유			0.1	0.1	0.0
화학	제품			1.6	1.5	-0.1
	비금속 광물			2.8	2.5	-0.3
1차	금속			1.2	0.9	-0.3
	금속 가공			3.7	3.2	-0.5
조립	가공			2.0	1.8	-0.2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4	1.3	-0.1
전	기계			2.4	2.0	-0.4
	및 장비			3.2	2.7	-0.5
운	송장			1.8	1.6	-0.2
	제조임가공, 산업용장비수리			8.4	5.9	-2.5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7	2.1	0.4
	시설			7.6	6.3	-1.3
서비스	비			10.2	7.7	-2.5
	도소매 및 운송			12.7	9.2	-3.5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			14.2	9.2	-5.0
	운송 서비스			10.1	9.2	-0.9
생산자	서비스			6.0	4.7	-1.3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4.9	4.3	-0.6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6	3.5	-1.1
	부동산 서비스			2.6	2.1	-0.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7.6	5.9	-1.7
	사업 지원 서비스			15.6	10.5	-5.1
사회	서비스			12.8	10.1	-2.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2.4	9.1	-3.3
교육	서비스			13.0	11.1	-1.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3.0	10.2	-2.8
소비자	서비스			15.9	12.2	-3.7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4.9	10.9	-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0.8	10.1	-0.7
	기타 서비스			22.1	16.5	-5.6
기타				-	-	-
전체				6.5	5.4	-1.1

2 고용계수*

* 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임금근로자수를 의미

□ 전체 고용계수(10억원당, 명목금액 기준)는 4.0명으로 부문별로는 서비스 5.8명, 건설 5.1명, 광산품 2.9명, 공산품 1.8명 순

— 고용계수는 2015년(4.8명) 대비 0.8명 하락한 가운데 서비스(7.6명→5.8명)와 공산품(2.1명→1.8명) 각각 1.8명, 0.3명 하락

품목별 고용계수

(명/10억원)

		2015년(A)	2020년(B)	증감(B-A)
농림수산물	림	1.9	1.6	-0.3
	수산물	2.5	2.9	0.4
	산	2.1	1.8	-0.3
	제조	2.9	2.3	-0.6
	제품	1.9	1.9	0.0
	제품	3.3	2.4	-0.9
	제품	3.5	2.8	-0.7
	제품	5.7	3.5	-2.2
	제품	1.5	1.4	-0.1
	제품	0.1	0.1	0.0
광업	석화비	1.5	1.4	-0.1
	1차	2.5	2.2	-0.3
	금속	1.1	0.9	-0.2
	제조	3.2	2.7	-0.5
	제조	1.8	1.6	-0.2
	제조	1.3	1.2	-0.1
	제조	2.2	1.9	-0.3
	제조	2.8	2.4	-0.4
	제조	1.8	1.6	-0.2
	제조	7.6	5.2	-2.4
건설	건설	1.5	1.8	0.3
	건설	5.8	5.1	-0.7
	건설	7.6	5.8	-1.8
	건설	7.3	5.5	-1.8
	건설	8.3	5.6	-2.7
	건설	5.6	5.2	-0.4
	건설	5.3	4.1	-1.2
	건설	4.4	3.9	-0.5
	건설	4.4	3.4	-1.0
	건설	1.6	1.4	-0.2
서비스	서비스	6.7	5.2	-1.5
	서비스	14.5	9.8	-4.7
	서비스	11.6	9.3	-2.3
	서비스	12.4	9.1	-3.3
	서비스	10.1	9.0	-1.1
	서비스	12.2	9.7	-2.5
	서비스	9.5	6.8	-2.7
	서비스	8.8	5.8	-3.0
	서비스	7.0	6.2	-0.8
	서비스	13.1	9.3	-3.8
기타	-	-	-	
전체	4.8	4.0	-0.8	

IV 노동유발효과

1 부문별 유발효과

취업유발계수 하락, 공산품에서 간접취업유발률이 높은 모습

(부문별 취업유발계수)

※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하며, 취업계수(\hat{l}_w)에 최종수요 1단위당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I-A^d)^{-1}$)를 곱하여 계산

- 전체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명목금액 기준)는 9.7명으로 부문별로는 농림수산물 25.3명, 서비스 11.5명, 건설 10.5명, 광산품 8.3명, 공산품 6.3명 순
 - 서비스의 경우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18.4명)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14.9명)가, 공산품의 경우 음식료품(12.4명)과 제조임가공, 산업용장비수리(10.0명)가 각각 높게 나타남
- 취업유발계수는 2015년(11.7명) 대비 2.0명 하락하였으며 서비스(15.0→11.5명, -3.5명)의 하락폭이 공산품(7.3→6.3명, -1.0명)보다 크게 나타남
 - 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 하락은 소비자서비스(23.0명→18.2명)와 도소매 및 운송(17.8명→13.4명)이 주도
 - 공산품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임가공, 산업용장비수리(13.8명→10.0명)와 소비재제품(12.4명→10.6명)을 중심으로 하락

품목별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2015년(A)	2020년(B)	증감(B-A)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25.0	25.3	0.3
	농림수산물				8.5	8.3	-0.2
광업	광업				7.3	6.3	-1.0
	광업				12.4	10.6	-1.8
제조업	제조업				14.0	12.4	-1.6
	제조업				10.6	7.9	-2.7
서비스업	서비스업				10.6	8.9	-1.7
	서비스업				14.8	10.3	-4.5
기타	기타				5.4	4.9	-0.5
	기타				1.3	1.8	0.5
제조업	제조업				5.7	5.2	-0.5
	제조업				8.9	8.1	-0.8
서비스업	서비스업				5.1	4.3	-0.8
	서비스업				9.0	7.8	-1.2
제조업	제조업				6.5	5.3	-1.2
	제조업				4.7	3.9	-0.8
서비스업	서비스업				7.3	6.0	-1.3
	서비스업				8.8	7.2	-1.6
제조업	제조업				8.3	6.6	-1.7
	제조업				13.8	10.0	-3.8
서비스업	서비스업				4.1	4.7	0.6
	서비스업				12.8	10.5	-2.3
제조업	제조업				15.0	11.5	-3.5
	제조업				17.8	13.4	-4.4
서비스업	서비스업				19.6	13.5	-6.1
	서비스업				14.2	13.2	-1.0
제조업	제조업				10.0	7.7	-2.3
	제조업				10.0	8.0	-2.0
서비스업	서비스업				9.0	6.6	-2.4
	서비스업				5.2	4.2	-1.0
제조업	제조업				12.7	9.8	-2.9
	제조업				19.4	13.8	-5.6
서비스업	서비스업				16.3	12.8	-3.5
	서비스업				15.0	11.4	-3.6
제조업	제조업				16.9	14.0	-2.9
	제조업				17.7	13.5	-4.2
서비스업	서비스업				23.0	18.2	-4.8
	서비스업				23.6	18.4	-5.2
제조업	제조업				16.6	14.9	-1.7
	제조업				28.0	21.3	-6.7
기타	기타				13.2	11.3	-1.9
	기타				11.7	9.7	-2.0

(취업유발의 직·간접효과 구분)

※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 발생시 해당 상품에서 직접 유발되는 취업자수(직접유발효과)와 타 상품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간접유발효과)로 구분 가능

□ 취업유발계수 9.7명 중 직접유발효과는 5.4명, 간접유발효과는 4.3명으로 직접유발효과가 1.1명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 간접유발효과는 광산품 5.3명, 농림수산물 4.5명, 공산품 4.3명, 서비스 3.8명 순

□ 간접취업유발률*은 80.4%로서 부문별로는 공산품(211.1%),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131.1%), 광산품(176.9%)은 100%보다 높고, 건설(66.8%), 서비스(48.9%) 및 농림수산물(21.6%)은 100%보다 낮게 나타남

* 간접취업유발률(=간접유발인원/직접유발인원×100)이 100% 이상이면 간접유발효과가 직접유발효과를 상회함을 의미

— 공산품은 직접유발효과에 비해 간접유발효과가 높는데 특히 석탄 및 석유제품(1,672.3%), 음식료품(429.4%), 1차금속제품(367.8%) 등에서 높게 나타남

—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간접취업유발률이 10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25.0%), 교육서비스(25.6%), 사업지원서비스(31.6%) 등에서 낮은 수준을 보임

○ 한편 서비스 내에서도 부동산서비스(101.1%), 금융 및 보험 서비스(88.9%),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85.5%)는 간접취업유발률이 비교적 높은 편

품목별 직간접 취업유발효과

(명/10억원, %)

	총유발인원 (=취업유발계수, A)	직접유발인원 (=취업계수, B)	간접유발인원 (C=A-B)	간접유발률 (C/B)
농림수산물	25.3	20.8	4.5	21.6
광공업	8.3	3.0	5.3	176.9
소비재제품	6.3	2.0	4.3	211.1
음식료품	10.6	2.9	7.7	258.3
섬유 및 가죽 제품	12.4	2.3	10.1	429.4
목재 및 종이, 인쇄	7.9	3.1	4.8	153.6
기타 제조업 제품	8.9	3.4	5.5	160.2
기초소재제품	10.3	5.0	5.3	106.1
석탄 및 석유 제품	4.9	1.5	3.4	225.9
석탄 및 석유 제품	1.8	0.1	1.7	1,672.3
화학제품	5.2	1.5	3.7	237.6
비금속 광물 제품	8.1	2.5	5.6	218.1
1차 금속 제품	4.3	0.9	3.4	367.8
금속 가공 제품	7.8	3.2	4.6	147.5
조립가공제품	5.3	1.8	3.5	204.4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3.9	1.3	2.6	201.1
전기장비	6.0	2.0	4.0	195.7
기계 및 장비	7.2	2.7	4.5	165.7
운송장비	6.6	1.6	5.0	307.4
제조임가공, 산업용장비수리	10.0	5.9	4.1	69.4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4.7	2.1	2.6	131.1
건설	10.5	6.3	4.2	66.8
서비스	11.5	7.7	3.8	48.9
도소매 및 운송	13.4	9.2	4.2	45.7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	13.5	9.2	4.3	46.8
운송 서비스	13.2	9.2	4.0	43.7
생산자 서비스	7.7	4.7	3.0	63.7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8.0	4.3	3.7	85.5
금융 및 보험 서비스	6.6	3.5	3.1	88.9
부동산 서비스	4.2	2.1	2.1	10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9.8	5.9	3.9	65.1
사업지원 서비스	13.8	10.5	3.3	31.6
사회 서비스	12.8	10.1	2.7	26.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1.4	9.1	2.3	25.0
교육 서비스	14.0	11.1	2.9	25.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3.5	10.2	3.3	32.7
소비자 서비스	18.2	12.2	6.0	49.5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8.4	10.9	7.5	68.5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4.9	10.1	4.8	47.0
기타 서비스	21.3	16.5	4.8	29.0
기타	11.3	0.0	11.3	-
전체	9.7	5.4	4.3	80.4

(부문별 고용유발계수)

□ 고용유발계수(명/10억 원 기준)는 7.2명으로 부문별로는 서비스 8.6명, 건설 8.2명, 광산품 6.9명, 공산품 4.7명 순

— 2015년(8.6명) 대비 1.4명 감소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서비스(11.1명→8.6명)와 공산품(5.5명→4.7명)이 각각 2.5명 및 0.8명 하락

품목별 고용유발계수

(명/10억 원)

					2015년	2020년	증감
농림수산물	림				4.7	4.3	-0.4
	수산물				6.7	6.9	0.2
광업	소	비	재	제	5.5	4.7	-0.8
	음식료	유	가	인	7.2	5.9	-1.3
제조업	음식료	유	가	인	6.3	5.6	-0.7
	음식료	유	가	인	8.0	5.9	-2.1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7.9	6.8	-1.1
	음식료	유	가	인	10.6	7.4	-3.2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4.2	3.9	-0.3
	음식료	유	가	인	1.0	1.4	0.4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4.5	4.1	-0.4
	음식료	유	가	인	6.8	6.2	-0.6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4.1	3.5	-0.6
	음식료	유	가	인	7.2	6.3	-0.9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5.2	4.4	-0.8
	음식료	유	가	인	3.8	3.3	-0.5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5.9	4.9	-1.0
	음식료	유	가	인	7.1	5.9	-1.2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6.8	5.6	-1.2
	음식료	유	가	인	11.3	8.2	-3.1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3.4	3.8	0.4
	음식료	유	가	인	9.7	8.2	-1.5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11.1	8.6	-2.5
	음식료	유	가	인	10.9	8.4	-2.5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12.0	8.6	-3.4
	음식료	유	가	인	8.6	8.0	-0.6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8.2	6.4	-1.8
	음식료	유	가	인	8.1	6.7	-1.4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7.9	5.9	-2.0
	음식료	유	가	인	3.7	3.1	-0.6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10.5	8.1	-2.4
	음식료	유	가	인	17.3	12.3	-5.0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14.0	11.1	-2.9
	음식료	유	가	인	14.3	10.8	-3.5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12.7	10.9	-1.8
	음식료	유	가	인	15.3	12.0	-3.3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13.7	10.3	-3.4
	음식료	유	가	인	13.1	9.6	-3.5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10.9	9.6	-1.3
	음식료	유	가	인	17.2	12.6	-4.6
서비스업	음식료	유	가	인	9.7	8.4	-1.3
	음식료	유	가	인	8.6	7.2	-1.4

2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효과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자 비중이 감소

(최종수요에 의한 취업유발효과)

※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 : 소비·투자·수출 등 최종수요가 국내 총산출을 유발하고 유발된 국내 총산출이 취업을 창출하기 때문에 최종수요 → 생산유발계수 → 산출 → 취업으로 연계되는 관계식 $[L_{(n \times 3)} = \hat{l}(I - A^d)^{-1} \cdot Y_{(n \times 3)}^d]^*$ 을 이용하여 최종수요 각 항목이 우리나라 취업자수 유발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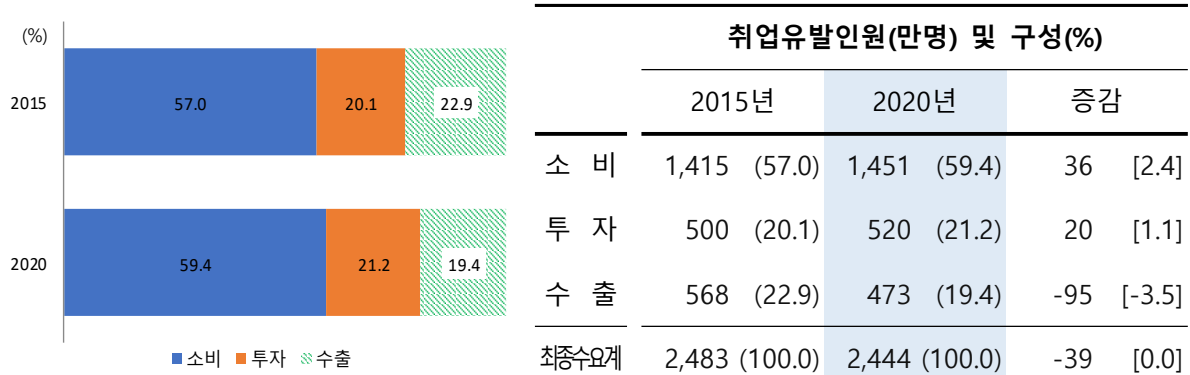
* n 은 상품부문 수, 3 은 최종수요 항목(소비, 투자, 수출) 수

※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 소비·투자·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에 대한 수요가 10억원 발생하면 취업자수가 어느 정도 유발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 $[L_{(n \times 3)} = \hat{l}(I - A^d)^{-1} \cdot Y_{(n \times 3)}^d]$ 의 열합계를 최종수요 항목별($Y_{(n \times 3)}^d$)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

□ 2020년 우리나라의 취업자(2,444만명) 가운데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유발된 구성비를 살펴보면 소비 59.4%, 투자 21.2%, 수출 19.4% 순

— 코로나19에 따른 대외거래 위축으로 수출의 비중이 2015년(22.9%) 대비 3.5%p 감소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 및 구성



주 : ()내는 최종수요 대비 구성비, []내는 구성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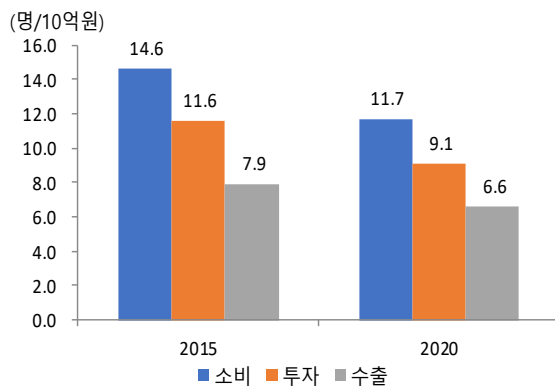
□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9.7명*이며, 최종수요 항목별로 보면 소비가 11.7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투자 9.1명, 수출 6.6명 순

* 취업유발계수 9.7명은 소비·투자·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 2,525.9조원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2,444만명의 취업자가 창출(=2,444만명/2,525.9조원)되었음을 의미

— 2015년과 비교하면 취업유발계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큰 폭(-2.9명)으로 하락

○ 이는 소비에 의해 유발된 인원(1,415만명→1,451만명, +2.5%)은 소폭 증가한 반면 국산품 최종수요에서 소비 금액(970.4조원→1,239.3조원, +27.7%)은 크게 증가한 데 기인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¹⁾		
		2015년	2020년	증감
소	비	14.6	11.7	-2.9
투	자	11.6	9.1	-2.5
수	출	7.9	6.6	-1.3
최종수요계		11.7	9.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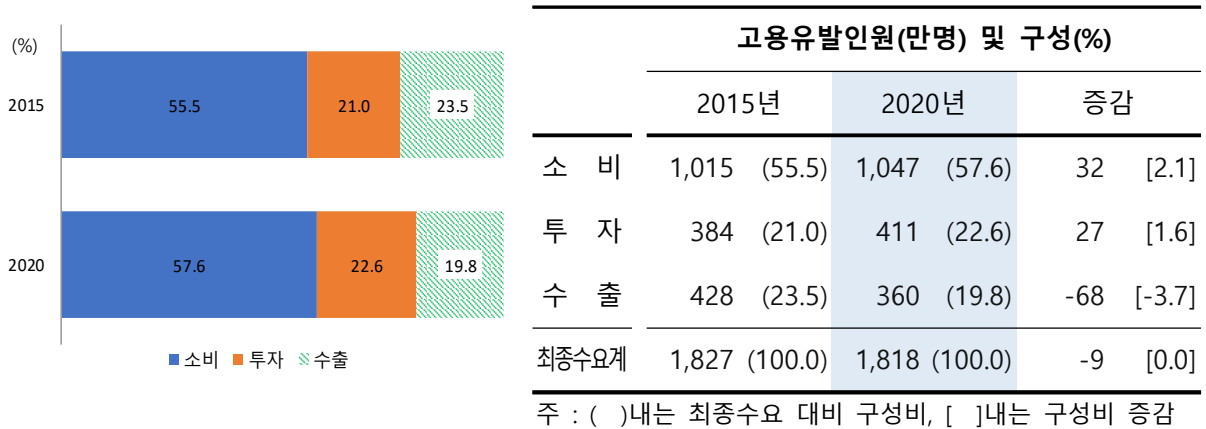
주 : 1) 최종수요에 의한 취업유발인원 ÷ 국산품 최종수요액

(최종수요에 의한 고용유발효과)

□ 2020년중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818만명이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얼마나 유발되었는지 구성비를 살펴보면, 소비 57.6%, 투자 22.6%, 수출 19.8% 순으로 나타남

— 2015년과 비교하면, 수출의 비중은 감소(23.5%→19.8%, -3.7%p)하고 투자(21.0%→22.6%, +1.6%p)와 소비(55.5%→57.6%, +2.1%p)의 비중은 증가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인원 및 구성



□ 최종수요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을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는 7.2명이며, 최종수요 항목별로 보면 소비가 8.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투자 7.2명, 수출 5.0명 순

— 2015년 대비 소비(10.5%→8.4%, -2.1%p), 투자(8.9%→7.2%, -1.7%p), 수출(6.0%→5.0%, -1.0%p)의 고용유발효과가 모두 감소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계수

